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 및 성령 애국 집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이하 재단)이 '광복 76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영적 대각성 성령 애국 집회를 연다. 8월 15일 오후 4시, 비전 커뮤니티교회(담임목사 이 서,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한반도와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 재단 측은 "이날 지난 6월25일 창립한 '캘리포니아 한인 공화당' 전당대회도 겸하여 열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교회인 점을 감안해 정치적 행사는 배제하고 예배와 기념식만 갖기로 했다." 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9월 14일 열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주지사 후보로 나선 Jenny Rae,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에릭칭 월넷시장, 타드프리지 오렌지카운티검사장 등이 참석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 간증한다. 또 조현영 목사(큰빛교회)가 기념사를, 이서 목사(비전교회)와 박성녀 목사(Joy Ministry/HIM), 영어가 환영사를 전한다. 심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는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영적 문화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하도록 '성령 충만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란 제목으로 설교한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조현영 목사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영적 대각성 성령 애국 집회와 광복 기념식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754) 366-9923

수석부회장 후보 접수 남가주교협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조병국 목사, 이하 남가주교협)가 오는 9월 7일 오전 11시, 남가주교협 사무실(3200 Wilshire Bl. #1205, LA, CA 90010)에서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남가주교협은 최근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이와 같이 알리고 수석부회장 후보를 접수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교단 혹은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 추천서, 최종학력증명서, 섬기는 교회 최근 주보 1부등이며 발전기금 3,000달러를 내야 한다. 서류 접수처는 남가주교협 사무실이며, 제출 기한은 8월 24일(화) 오후 4시이다.

▶ 문의: (323) 608-1010(총회 관련)
(310) 321-2348(서류 접수 관련)



용서는 위대한 사랑(마태/8,21-35 (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줘야 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도 언제나 유보된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의 내용입니다.



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어서 용서가 되면 그는 평생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평생을 끌려 다니면서 천 번 만 번 죽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도 없습니다. 미운 세상 끝까지 인간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따라가서 괴롭힙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오랫동안 박해와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은 실로 약소 민족이었으며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제자들을 용서해 줘야 했습니다. 미움과 복수는 악순환만 계속 불러들이게 됩니다.

은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테나리온 빛진 사람을 만나자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100테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2백만 원쯤 됩니다. 2백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1조 원 이상의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다시 말해 눈꼽만한 잘못도 결코 잊지 않고 따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남의 잘못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 때문에 불행합니다.

용서는 굴욕적인 것 같으나 위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되게 용서할 수 있으며 크기가 좁쌀만도 못한 인생들은 평생을 걸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가 자기 계모한테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도 좋고 아버지의 경제력이 좋아서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었습니다. 시집도 병원을 가진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용서에서 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가 진정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직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매달릴 자비와 용서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돈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벌 수가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여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왕은 바보처럼 한 푼도 건지지 않고 전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이면서도 자신의 얼굴에 돋아 있는 피부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원인도 병명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계모에 대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아 버렸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썩은 찌꺼기를 깨끗이 씻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때 그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돈을 탕감 받은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강길웅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